

TV 도시, 노인 시민을 출산하다

<올드미스 다이어리>의 노년 캐릭터를 중심으로

서지민

1. 들어가는 말: 노인과 TV

얼짱, 몸짱 열풍에 이어, 올해 방송이 주목하는 것은 동안이다. ‘누가 더 젊어 보이는가?’¹⁾, ‘어떻게 젊어 보이게 만들 수 있는가?’²⁾가 방송이 시청자에게 제시하는 화두이다. 예쁘다거나 멋지다는 말처럼 어려 보인다는 말이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이 되었고, TV에 나온 연예인을 칭찬하는 말로 나이를 짐작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라는 수식어가 자주 사용된다. 하지만, 어리게 보인다는 말은, 예쁘다는 말이나 멋지다는 말을 들을 때처럼 마냥 좋지만은 않다. 어려 보인다는 것은 더 이상 어리지 않다는 사실을 잘 숨기고 있다는 말을 포함한다. 어려워보고자 하는 노력, 늙지 않으려는 발악에는, 존재하되 유령처럼 사회 언저리를 떠돌기만 하는 노인이 되는 시간을 유예하고 싶은 현대인의 욕망이 들어있다. 이러한 욕망, 나이 들었

1) <대한민국 최고의 동안을 찾는다>(SBS, 2006.1.30).

2) ‘동안 클럽’(MBC, <일요일 일요일 밤에>).



다는 진실을 은폐하는 행위의 이면에는 방송이 형성한 노년의 이미지가 자리 잡고 있다.

TV뉴스와 시사 프로그램에서 노인은 저출산과 관련된 경제 수치를 사용해서, 혹은 부양과 관련된 자녀의 폐륜을 고발하면서 등장한다. 이들 프로그램에서 노인은 사회의 구성원이 아닌,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게다가, 시청자들에게 고정된 이미지를 형성시키는 드라마와 시트콤은 부정적인 노년의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시트콤과 코미디 등에 노인이 등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이들 장르를 통해 드물게 형성된 노년의 이미지는 대부분 괴팍하거나, 무기력한 이미지 등 부정적으로 고정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드라마의 경우, 노인의 등장 빈도는 여타 장르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지만,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노인은 가족 구성원의 일부로서, 희미한 존재감만 있을 뿐이다. 드물게 이들이 활동 주체가 되는 경우에도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TV가 노인에 대해 가지는 반감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TV는 노인들의 일상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시청자 주권을 선언한 TV 시대의 도래에도 불구하고, 노인들만큼은 TV가 만든 도시의 시민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었다. TV가 시청자들의 일상을 담으려는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TV 속에서 노인의 일상과 삶은 철저히 무시당했었다. 통계 수치와 경제 지표가 노인들을 잉여 인간 취급하고 있다면, TV는 일년에 한두 편, 시사 프로그램에서 고발하는 노인문제를 제외하고는, 급변하는 사회에서 변해가는 노인들의 삶의 모습, 그들의 목소리를 담는 노력을 게을리해 왔다. 이러한 방송 현실에서, <올드미스 다이어리(이하 올미다)>는 세 할머니 캐릭터를 통해, 일상적인 노년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담아냈다. 거기에 한 발 더 나아가, 긍정적인 노년의 삶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TV 시티에 노인 시민을 출산한 최초의 프로그램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2. 일상 속 할머니의 탄생

TV 속에서 현실에 존재하는 자연스러운 노년의 모습을 찾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런 방송 상황에서 시트콤 올미다는 주변인에 머물러 있던 노년의 모습을 현실감 있게 그려냄으로써, 방송이 담아내야 할 노년의 모습을 한 단계 진화시켰다. 시트콤 속에는 주인공 미자의 할머니인 영옥과 그녀의 여동생들 영숙, 혜옥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비록 주인공의 할머니로 설정되어 있을지라도, 주인공과 분리된 에피소드 속에서, 늙은 독신 여성의 모습을 건강하고 현실적으로 표현했다.

세 할머니는 이전까지 TV에 등장하던 노인들과 뚜렷한 차별점이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전까지 TV가 담아내는 노인은 다양성을 상실한 일부분이 부각된 극적인 모습이었다. TV에서 그들은 사회와 단절된 채, 죽을 때를 기다리는 무기력한 모습, 거추장스러운 존재, 극복해야 할 대상, 그리고 향수를 자극하는 주변인이었다. 시청자는 일상 속에서 젊은이들과 마찬가지로 느끼고 생각하고 사회와 교류하는, 활동하는 주체로서의 노년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간혹, 이들이 활동 주체가 될 경우는, 치매나 병에 걸려, 젊은이들의 고통을 형성하거나, 며느리를 구박하는 잔인한 시어머니로 착한 며느리의 대척점에 서거나, 사사건건 참견하는 젊은 사람을 성가시게 만들거나, 고집불통에 독단적인 성격으로 성장한 자식들을 벌벌 떨게 만드는 모습으로 묘사되는 것에 그쳤었다. 이들이 긍정적인 이미지로 묘사되는 드라마도 있었으나, 이 경우, 노인은 세상사에 달관된 현학적인 이미지로 젊은이들에게 깨우침을 주는 존재,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존재, 혹은 어린 시절 추억 속의 순수한 시골 외할머니와 같은 이미지로 그려짐으로써, 역시 다면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을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올미다> 속에 등장하는 세 할머니는 지극히 평범한 할머니들로, 노년의 무기력함, 괴팍함, 고집스러움 등의 부정적 이미지와 더불어,



가족을 걱정하는 모습, 세월이 주는 현명함 등의 긍정적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다. 극적으로 부정적이지도 긍정적이지만도 않은 할머니라는 세대를 떠난 그저 평범한 소시민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이 그간 TV에서 외면당했었기에, 이들의 등장은 시청자들에게 신선함을 안겨주었다. <올미다>는 이들을 철저하게 현실에 기반을 두고 표현하고 있다. 새로운 노년의 모습을 담기 위해, 젊은이들의 옷차림이나 유행을 마냥 따라하도록 만들어 억지웃음을 유발시키지도 않고, 이들의 화려한 연애를 보여주지도 않는다. 노화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반영하면서도, 그간 TV가 놓치고 있었던 노인들의 감수성과 생활을 그려내는 것이 <올미다> 속의 세 노인이 돋보였던 이유였다.

1) 노인, 노화를 이야기하다.

세 할머니는 노화를 겪고 있고, 자신들의 노화를 하나의 과정으로 담담하게 받아들인다. 둘째 할머니 영숙은 관절염에 시달리고, 막내 할머니 혜옥은 치매 증상에 가까운 건망증을 겪고 있다. <올미다>는 할머니들의 노화 증상을 무시하지 않고 담아내지만, 이에 과도하게 집착해 서글프거나 인생이 끝난 것처럼 처량하게 다루지 않는다. 영숙의 관절염과 혜옥의 건망증이 가족의 관심이 필요한 불편한 증상이기는 하지만, 이는 늙어감에 따라 겪어야 하는 자연스런 불편함일 뿐, 그들의 생활 전체를 뒤흔들 만큼의 의미를 형성하지는 않는다. 관절염으로 고생해서 봉사 활동에 빠질 수는 있지만, 이런 모습은 늙고 젊고를 떠나, 몸이 불편한 날 일을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묘사된다.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영숙보다 더 나이든 할머니인 영옥이 봉사 활동에 참가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노화가 노인들의 무기력함으로 묘사되는 것을 방지해 주는 것이다.

육체적으로 노화를 겪고 있지만, 세 할머니는 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한다. 노인정, 노인대학, 봉사 활동 등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줌

로써, TV에서 형성했던 집안이나 공원에 모여 있는 소극적인 노년의 이미지를 깨고 있다. 사회 활동이 아니더라도 그녀들은 자주 외출을 하고, 사람들과 끊임없이 접촉한다. 할머니들이 세상과 활발하게 접촉하는 것과 달리, 젊은 미자 삼촌 우현의 활동 범위는 거의 집 밖을 넘지 않는다. 노화과정 속에서도 활발하게 사회와 접촉하는 그녀들의 모습은 노인을 사회 속에서 소외시켰던 것이, TV드라마와 젊은 사람들의 고정 관념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동시에 그녀들의 모습은 적당한 역할 모델을 제시받지 못하던 노인들에게도 건강한 삶의 대안을 제시한다.

2) 노인, 감정을 이야기하다

그녀들이 육체적 변화를 겪어가는 과정이 일상 속에서 전개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녀들의 정서의 표현도 현재를 바탕으로 전개된다. <올미다>는 노인들이 겪는 정서적 변화 또한 과장하지 않는다. 그녀들이 가지는 특징은 그들의 정서가 남녀노소를 떠나 지극히 평범하다는 것이다. 보편적인 성격을 표현하는 등장인물이지만, 이전까지 TV에서 보편적인 정서를 가진 노인이 표현되는 것이 드물었기에 세 자매는 특별하게 느껴진다. 기존의 드라마 속의 노인들의 정서는 과거와 추억을 기반으로 형성되었지만, 세 자매의 정서는 현재를 기초로 형성된다. 그간 TV는 아름다웠던 시절, 혹은 추억이라는 미명하에 노인들의 지나간 시간에 주목했었다.

그러나 <올미다>는 노인들의 현재에 주목한다. 더 이상 젊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시간이 젊은 시절로 회귀한다고 믿는 것은 젊은 사람들의 착각일 뿐이다. 비록, 주름지고 몸이 약해졌다 할지라도, 박제가 아니라 여전히 살아 숨쉬는 존재이기에, 노인에게도 현재는 유의미한 것이다. <올미다>는 이 사실을 놓치지 않았다. 세 자매 역시 기존에 TV드라마에 출연했던 노인들처럼 젊은 시절을 회상하기도 하지만, 그들의 정서는 과거를 기반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대한 반응으로 형성된다. 혼자 사



는 할머니들의 방이면 흔히 등장하는 죽은 배우자의 사진조차 이들의 방에서는 찾아보기 힘들고, 이 사진을 하고 하는 녀두리는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영감 따라 죽어야지를 중얼거리던 영옥 할머니는 남편의 환영을 보자, 두려움에 떨며 귀신을 멀리 쫓아버린다.

<올미다> 속의 직접적인 대사를 통해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몸이 늙었다고 해서, 마음까지 늙지 않는다는 것을 할머니들의 사소한 일상의 경험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현우가, 세 할머니를 위해 현철의 시인을 받아주었을 때, 세 할머니는 모두 시큰둥하게, 기왕 받을 것이면 젊은 연예인의 시인을 받아다 주었으면 하고 불평한다. 미자가 신기해하자, 영옥과 영숙은 늙었다고 늙은이들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고, 늙어도 보는 눈이 다르지 않다고 이야기한다.³⁾ 이 짧은 신을 통해, 그 동안 우리 사회에 형성되었던 노년의 이미지와 노년의 실제 사이의 차이점이 드러난다. 노인은 세상 변화와 무관하게, 시대에 뒤떨어진 그들의 젊은 시절의 생각을 가진 채, 그대로 늙어갔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미지를 세 할머니는 통쾌하게 뒤집는다.

또, 노인정에 나타난 할아버지가 자신을 좋아한다고 착각하고 그를 향해 애정을 표현하던 영옥 할머니의 모습⁴⁾은, 사랑과 연애 감정이 청춘의 전유물인 것처럼 묘사하던 TV와 젊은 세대를 비웃고 있다. 이 에피소드는 젊음이 지나가더라도 사랑하고 사랑을 받고자 하는 인간의 근원적인 욕구는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과격적이지 않은 설정으로 담담하게 묘사했다. 드라마에서 노년의 사랑을 다룰 때, 자식들의 눈을 두려워하는 몰래 데이트의 형태나, 자식들의 반대에 강경하게 맞서는 극적인 요소를 강조했었다. 반면 <올미다> 속의 세 할머니의 만남은 젊은 사람의 눈치를 보지도 않는다. 노년에도 새로운 만남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에피소드 전반을 거쳐서 표현하고 있다.

3) ‘아빠와 함께 한 하루’(2005.5.13).

4) ‘그는 당신에게 반하지 않았다’(2005.6.8).

3) 노인, 우리에게도 내일은 있다

노인은 곧 죽음을 맞이할 사람이 아니라, 살아 숨쉬며, 내일도 살아있을 존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는 그들의 오늘과 내일에 주목하지 않고, 노인을 과거에 묶여있는 유령 같은 존재로 취급해 왔었다. 신문 오늘의 운세에서 빠지는 것에 대해, 영옥은 자신이 한창 나이이며, 아직도 미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한다. 심지어 그녀는 신문 “오늘의 운세”에 애정운이 빠진 것에 대해 항의 전화를 한다.⁵⁾ <올미다>는 이처럼 외면당했던 노인들의 현재와 미래에 주목한다.

그들은 ‘쌍문동 쓰레빠’로 대변되는 영옥 할머니를 통해, 노년에게 역할을 부여한다. 어른들이 겁내는 불량 청소년을 선도하는 영옥 할머니의 모습에서, 시청자는 어른이 어른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회를 바라본다. 그녀는 어른이 애들을 겁내면 세상이 끝난 것이라고 말한다. 노년층이 가진 지식은 우리 사회에서 낡은 것 취급을 받을지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사회의 중심으로써의 역할은 필요한 것이다.

쓰레빠를 던지면서 청소년들을 선도하지만, 그녀가 영웅 심리에 부합하는 인물이라거나, 세상 무서운 것을 모르는 막무가내 할머니는 아니다. ‘살짝 외롭던 날’⁶⁾의 에피소드에서 남학생을 괴롭히는 여학생을 혼내고 학생의 어머니로부터 감사인사를 받던 영옥이지만, 집 앞에 쓰러진 술 취한 남자는 그가 이성을 잃은 상태란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한다. 그녀는 결코 영웅 심리에 빠진 할머니가 아니라, 어른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 뿐이다.

잉여 인간 취급을 당하고 무기력하게 표현되었던 노인들에게 그들이 이 사회의 질서를 바로잡을 역할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올미다>의 영옥은 이야기하고 있다. 할 일이 있다는 것,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은, 노인들의 존재 이유를 뒷받침해 준다. 그러나 기존의 방송에

5) ‘말하지 않아도’(2005.8.12).

6) ‘살짝 외롭던 날’(2005.5.19).



서는 이 부분을 간과하거나, 과도하게 강조해, 억지스러운 캐릭터를 설정하고, 젊은 사람과 노년 모두의 공감을 이끌어 내기 힘들었었다. 젊은 사람과 노인들 모두에게서 공감을 이끌어 내면서도, 살아있는 노인의 모습을 그려냈다는 점은 <올미다>가 보여준 미덕이었다.

3. 노인 시민, 성장은 가능한가?

<올미다>는 사실적인 노인의 모습을 표현함으로써, TV 도시에서 자리 잡지 못하고, 유명처럼 떠돌기만 하던 노인 시민을 출산했다. 그러나 어렵게 태어난 노인 시민이 TV 도시 속에서 중추적인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문제점이 남아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은 새로운 시각으로 노인을 표현한 <올미다>에서도 발견된다.

7월 27일 방송된 ‘너에게만’ 편은 노인 캐릭터의 표현에 있어, <올미다>가 가진 한계점을 드러내는 사건이었다. 시부모의 뺨을 때리는 며느리라는 자극적인 설정은 이전까지 <올미다>가 가진 미덕이었던 인위적이지 않은 노인 캐릭터이라는 표현의 맥락을 벗어나는 것이었다. TV뉴스나 시사고발 프로그램, 혹은 단막극 등에서 표현되는 극적인 상황의 설정을 매일같이 방영되는 일상의 프로그램 속에 도입했을 때, 시청자가 겪게 되는 불편함과 불쾌함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다.

노인문제를 담아내고 싶었던 제작진의 의도가 자극적인 하나의 설정으로 인해, 긍정적인 부분은 사라지고, 지나치게 확대된 면이 없지는 않지만, 평일 저녁 가족이 보는 시간대에 방송된 것을 감안한다면 시청자와 여론의 질타는 충분한 이유를 가진다. 일상적 이야기 속에서 세세한 대사와 인물 묘사로 편안하게 전달할 수 있었던 노인문제를, 이전까지 그러한 방식으로 잘 끌어오던 프로그램마저 그런 자극적인 이야기를 도입한 것을 통해, 앞으로 노인 캐릭터를 다루게 될 어떤 프로그램도 극적인 이야기가 주는 유희에

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는 시청자를 자극할 수는 있지만 방송에서 어렵게 등장한 노인이라는 시민 계층을 퇴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여론의 질타 이후, <올미다>에서 노인 캐릭터는 위축되었다. 이전까지 독립된 에피소드 속에서 각자의 목소리를 당당하게 내던 세 할머니가, 사건 이후, 미자의 결혼, 부록의 실직 등 가정 내에서 가족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경향이 강해졌다. 이는, 여론의 질타 후, 성장점을 찾아가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안전하게 피해가려는 제작진의 태도는 노인 시민의 성장을 방해하는 또 하나의 난관을 보여준다.

4. 나오면서: 노인이 되는 것이 두렵지 않은 그 날까지……

오래도록 젊고 싶은 것이 우리의 욕망이다. 늙는 것이 두려운 이유는, 죽음이 멀지 않았다는 인식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이기도 하다. TV는 이러한 이미지를 끊임없이 생산함으로써 시청자들에게 젊음에 대한 끝없는 열망을 형성했다. 하지만, 살아있는 한 누구도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고, 그것이 우리가 TV 도시가 노인에게 주목해야할 이유이다. 아무것도 끝나지 않은 여전히 존재하는 건강한 노인을 방송에서 자주 보여주고, 어엿하게 사회에 존재하는 노인을 소외시키지 않는 것, 그것이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방송의 모습일 것이다.

<올미다> 속의 할머니들 같은 유쾌한 인물들을 보면서, 젊은이들은 노인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저렇게 늙어갔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노인들은 TV 속에서 타인의 이야기가 아닌 자신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비로소 진정한 TV 시티의 시민이 된다. 성장이라는 과제가 남아있지만, <올미다>의 세 할머니 캐릭터는 TV 시티 속에 진정한 노인 시민을 탄생시켰다는 점에서 오랫동안 주목받아야할 것이다.